

“그라시아스 공연 성공, 부산에 대한 세계인 애정 깊어질 것”

박옥수 그라시아스합창단 설립자

7~11일 해운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올 북미 21개주 25개 도시 순회 무대 청소년 선도 등 전 세계서 공익 활동

“그라시아스합창단은 클래식 음악을 통한 정서순화를 목적으로 2000년에 창단했습니다. 아마추어 수준이 아닌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전문 합창단으로 국제 교류, 청소년 선도, 음악인 양성 등의 공익 활동을 전 세계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박옥수 (사) 그라시아스합창단 설립자는 공연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합창단의 전문성과 실력에 대해 큰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라시아스합창단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오디토리움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콘서트를 열었다. 크리스마스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진 공연으로, 코로나19로 3년 만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것이다. 이 콘서트는 올해 9월 북미 21개 주 25개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을 펼쳐 16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관람하기도 했다.

“그라시아스합창단은 2013년 사단법인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2015년에는 세계 최고 권위인 독일 마르크트오버도르프 국제



합창제에서 최고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유수의 합창제를 통해 그 실력을 인정 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라시아 합창단은 2010년 부산 국제합창제 혼성합창부문 대상을 비롯해 2014년 이탈리아 리바 델 가르다 국제합창대회 대상, 스위스 몽트로 국제합창제 혼성부문 1등 상, 최우수관객상 등을 수상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 합창단은 클래식 음악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

다. 특히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공연 등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사하고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라시아스합창단은 올해 한-이스라엘수도 60주년을 기념해 이스라엘을 방문해 평화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 설립자는 평화를 위한 콘서트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것은 전쟁과 테러의 위험 속에 있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전 등 고통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콘서트에 예루살렘에서 열린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콘서트에서 보여진 평화를 위한 마음이 합쳐진다면 모두가 큰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3년 만에 부산에서 선보인 그라시아스합창단의 공연과 관련, 박 설립자는 이번 콘서트의 성공으로 부산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설립자가 이끌고 있는 국제청소년연합(IYF)이 매년 여름 부산 해운대에서 전 세계 청소년·대학생이 참가하는 ‘월드 캠프’ 개막식을 부산에서 개최하는 이유 역시 세계인들이 부산에 대해 느끼는 매력 때문이다. IYF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인 굿뉴스코해의봉사단의 경험을 발표하는 행사 역시 내년 2월 부산에서 개최된다.

“부산은 전 세계에서든 드물게 바다와 함께 겹겹이 펼쳐진 산이 함께 있는 천혜의 환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부산을 방문해 본 세계인 누구나 부산의 매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그라시아스합창단 콘서트의 성공과 IYF의 행사 등을 통해 부산에 대한 세계인의 애정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서준경 기자 jumpjump@busan.com



영산대·우크라 대학 협약 와이즈유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는 최근 우크라이나 르비우 호텔요리전문대학교(총장 안나 발루사크), 한국·우크라이나국제친선협회(회장 이만 코지트스키)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교대, '사랑의 김장나눔' 부산교육대학교(총장 박수자)는 지난 9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갖고 거제 1동과 거제 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김장 50포기씩 나눔을 가졌다.



중구청, 지자체 생산성 대상 장관 표창 부산 중구청(구청장 최진봉)은 지난 9일 '제1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조소영 교수, 공법학회장 취임

조소영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된 한국공법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42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조



소영 교수는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한국공법학회를 주축으로 국내외 공법 관련 학술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교수는 1957년 한국공법학회에 발족한 이래로 66년 만에 여성학자로서는 처음으로 학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조 소영 교수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2001년 헌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4년부터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에 재직해 오면서, 헌법학을 중심으로 언론법·방송법·선거법·정당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 강성할 선임기자



대성문, 저축은행 우수고객 감사패

(주)대성문(사장 채창호·오른쪽)은 지난 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저축은행 50주년 기념식에서 우수 고객 감사패를 수상했다. 우수 거래 고객은 저축은행 정기 이 용 고객으로 이웃봉사 실천에 기여한 고객 중에서 선정된다.

(주)대성문의 감사패 수상은 동사가 사랑의 열매와 조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다수 봉사단체 후원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왔고, 최근 '부산시 그룹홈 지원센터'에 식료품과 성금을 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와 저축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란 평가다. 강성할 선임기자

행사

신우회(회장 김재수) 송년회-13일 오후 7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마산식육식당. 055-292-7585.

부고

△신순임 씨 10일 별세. 김석주(효성시티병원 재활센터장), 옥주(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본부장) 씨 모친. 부산 시민장례식장 특201호실. 발인 12일. 051-636-4444.

김귀엽 '구덕망개소리' 보유자, 옥관문화훈장

부산시 지정 제11호 무형문화재 '구덕망개소리' 보유자인 김귀엽(오른쪽) (사)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연합회 이사장이 지난 8일 한국문화재단 민속극장 풍류에서 정부의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부산지역의 문화재 보유자가 문화훈장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2022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수상자로 문화훈장 5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1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김귀엽 보유자는 아이농악(부산농악의 전신) 단장인 남편 고(故) 김만순과 함께 부산민속전통예술인 '부산농악' '부산고분도리걸립' '구덕망개소리'를 발굴·전승·보

전하면서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는데 공헌했다. 부산의 전통민속예술인들을 위한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생을 부산민속전통예술인 '부산농악' '부산고분도리걸립' '구덕망개소리'를 발굴·전승·보



김대철 여천차문화원장, '충담사' 북콘서트

김대철 여천차문화원장은 지난 9일 부산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인문학 강좌와 저서 <충담사> 북콘서트를 가졌다.

첫째 마당으로 김덕기 박사(말금산 미술관 관장)의 '한반도의 자기와 공양구의 시원' 강연이, 둘째 마당으로 김대철 원장의 저서 <충담사> 북콘서트가 이어졌다. 셋째 마당으로 우리 맛·맛·흥 한마당으로 김대철의 우리 비나리와 향가, 진효근의 뜰 연주, 김혜경의 우리 춤, 배일동의 판소리가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해운대문화예술원(원장 정혜선)과 이숙자 꽃차교육원이 찾자리로 참여했다.

김 원장의 저서 <충담사>는 신라의 충담사를 중심으로 신라인의 풍류사상과 한국 차문화의 원형과 그 토대가 된 신라인의 풍류 정신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차문화회 명예회장이자 저자는 1982년 부산, 울산, 대구, 경주 등에 여천차문화원을 개원했다.

강성할 선임기자 shg@

부산노인복지진흥회, 45년 활동 보고·비전대회

(사)부산노인복지진흥회(회장 김만돌)는 최근 부산직접사회관 대강당에서 '노인복지 45년 활동 보고 및 비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병수 국회의원과 손숙희 부산시 여성특보, 박현철 부산진구의회 의장, 김재은 시의원, 배영숙 시의원과 노인대학장, 안남연 대한노인회 부산진구회장, 경로당 어르신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 공연과 단우복지재단 정찬을 이사회장의 개회 선언과 김진수 대표의 대회사 가 진행됐으며 부산노인복지진흥회 김만돌

회장의 기념 회고사, 서병수 국회의원, 이현숙 국회의원의 축사와 법안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시상 등이 진행됐다. 강성할 선임기자



오형근 부회장, 부산 적십자 성금

(주)대한제강 오형근(오른쪽) 부회장은 지난 9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익·왼쪽)에 2023 적십자회비 '희망나눔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1954년 창업해 철근, 볼트 등을 판매 수출하고 있는 대한제강은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장학금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앞장서 왔다. 또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산 지역 문화 예술인 후원, 부산문화재단과 그랜드 오페라단 등의 문화 행사도 지원하고 있다. 강성할 선임기자



영광독서감상문 공모 시상식

(주)영광도서가 지난 10일 (사)청목문화회와 (사)목요학술회 공동 주최로 '제33회 영광독서감상문 현상공모'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영광독서감상문'은 올해로 33회째를 맞은 독서감상문의 등용문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공모전이자 전국 최고의 독후감 공모전이다.

시상식에는 김윤환 영광도서 대표이사, 청목문화회 김동백 회장, 목요학술회 황성일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성할 선임기자



베이프류 장산점, 착한가게 가입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소재한 '베이프류 장산점' (대표 김승현·오른쪽)이 지난 9일 부산사랑의열매(회장 최금식)의 착한가게 부산 908호로 가입했다. 액상 전자담배 전문점인 '베이프류 장산점'은 올 8월에 오픈해 매출 판매 수익금의 1%를 정기 기부해 야겠다고 결심하고 부산사랑의열매 착한가게로 가입했다. 강성할 선임기자



애국지사장근호기념사업회 정기총회 애국지사장근호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남우)는 10일 부산 해운대구 장산 모정원에서 사업회 임원과 유족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정기총회와 송년회'를 열었다.



부산체육지도자협회, 공로상·지도자상 시상식 부산체육지도자협회(회장 오정룡)는 10일 동구 협스타워에서 협회 임원과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부산시 체육공로상·우수지도자상 시상식을 가졌다.



반도라이온스, 15년째 사랑의 김장 담그기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지구 반도라이온스클럽은 최근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15년째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시레슬링협회, 레슬링인의 밤 부산시레슬링협회(회장 이현창)는 지난 9일 부산 중구 커넥트부산호텔 2층에서 협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부산시 레슬링인의 밤'을 가졌다.



시민등산아카데미 총동창회, 연탄·쌀 기증 부산시민등산아카데미 총동창회(회장 김용진)는 10일 부산연탄은행과 협약을 맺고 동구에 연탄 500정을 배달하고 연탄은행에 쌀 10Kg 50포대를 기증했다.